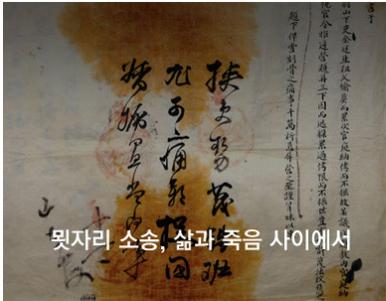


# 명당, 뫓자리

55  
webzine  
담談

2018.09



# 담談

소리를 내어 읽으면 '담담'

뜻으로 보자면 '이야기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이를 떠들썩하지 않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여기에 옛 정신과 현대 정신의 균형을 섬세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은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은 매달 선정된 주제에 따라 관련 이야기 소재를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선별하여  
창작자들에게 소개하고, 창작자들은 스토리테마파크의 이야기 소재를 모티프로  
자유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웹진에 선보입니다.

'담談'은 201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달 1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 명당은 어디에 있나

천준아

조상의 뒷자리 갈등으로 400년을 아우다옹한 두 집안이 있습니다. 파평 윤씨 가문과 청송 심씨 가문인데요. 1662년에 시작된 분쟁은 2007년이 돼서야 결론이 납니다. 17세기의 대립이 21세기까지 이어진 셈인데, 정확히 따지면 345년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상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CNN에서까지 이 사건을 해외 토픽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발단은 청송 심씨 가문에서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묘를 파주 광탄면에 있는 산에 쓰면서 시작됩니다. 뒷자리를 찾던 중, 오래도록 방치된 묘를 발견했는데 심씨 가문은 개의치 않고 근처에 뒷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묘가 파평 윤씨 가문의 조상인 고려 시대 학자이자 장군, 윤관의 묘였던 것이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763년에 파평 윤씨 측이 조상의 묘역을 찾던 와중에 심지원의 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윤씨 측은 우리가 먼저야 이장하라고 요구했고, 심씨 측은 그동안 관리도 안 해놓고 왜 이제야 그러냐며 맞섰는데요. 중재에 나선 왕, 영조도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건, 파평 윤씨 가문은 성종비, 중종비 등 왕비 4명을, 청송 심씨 가문은 세종대왕비를 비롯해 왕비 3명을 배출한 그야말로 명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조선 시대 임금도 풀지 못한 두 가문의 갈등은 2007년 윤씨 가문이 이장에 필요한 2500평의 땅을 제공하고, 심씨 가문이 이장에 합의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런 뒷자리 갈등은 조상의 뒷자리를 잘 쓰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인데요. 과연 명당에 조상을 잘 모시면 후대가 잘 될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전주 감찰사로 부임했을 때 재미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풍수를 아는 지관들을 불러 관할 지역의 땅을 명당과 흉당으로 분류하게 한 뒤, 후손들의 삶을 추적하게 한 것이죠. 흥미진진하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명당에 모셔도 망한 후손이 있고, 흉당에 모셔도 잘 된 후손이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뒷자리’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후손의 발복을 염원하는 이유였을까요? 김성갑 선생님은 조선 시대에 뒷자리 소송이 80% 이상이었던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고듭니다. 거기엔 인간들의 오랜 욕망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찬찬히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문신 작가님은 남의 묘지에 몰래 조상의 뒷자리를 쓰는 ‘투장’에 얽힌 두 집안의 갈등을 짚는 소설로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건너 그 자리에 있는 듯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이밖에, 홍윤정 작가님은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속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명당’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일기’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간 아들의 뒷자리를 살피는 과정을 ‘조성당일기’를 통해 들여다보고요.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서는 뒷자리와 산소를 그린 그림, ‘산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9월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 ‘뫓자리’를 주제로 정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명절이면 도리어 후손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곳이야말로 명당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쟁 없이 반목 없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길 바라봅니다.

\* 참고자료 : 최창조, 명당은 마음속에 있다 , 고릴라박스(비룡소), 2015

# 뫓자리 소송, 삶과 죽음 사이에서

## 어떤 산소 싸움의 기록

시린 대청마루 바닥을 짚고 있던 왼손은 저렸고, 오래도록 간 먹물은 진하였다. 조선 후기 어느 계유년(癸酉年) 정월(正月), 흐린 겨울날 아침 하늘이 벼루에 담긴 먹물에 반사되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송씨 집안에서 어렵사리 구한 상서(上書, 청원서) 쓸 종이는 당최 볼품이 없어 보였다. 그래도 글씨는 정갈한 듯 날렵하게 상서 한 장 다 써낸 것이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언양에 살고 있던 송 아무개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조상대대로 장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묻어오던 선산(先山)에 얼마 전 울산부 소송의 하참은 아전 하나가 어이없게도 자신의 조상을 매장한 것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의 영험한 기운이 꺾이고 다른 집안으로 흘러 자신을 집안에 큰 번괴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 집안이 들썩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길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죽어서도 조상님을 뵈 면목이 없어 집안 분위기는 침울하기 짝이 없었다.



산송관련 암행어사 상서(上書)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답답한 마음에 언양 현감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온갖 악다구니도 써봤지만, 그는 그동안 일 저일, 차일피일 미뤄가며 똑 부러지는 속 시원한 판결문 하나 못 내려주고 있던 터였다. 물론 울산부 아전 조상의 시신을 이장(移葬)해가라는 처분은 받아 내었지만, 그 처분조차 이 어디 종이에 쓰인 글일 뿐, 상대방인 울산부 관리는 그 글귀뿐인 처분에 콧방귀도 안 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에 대해 송씨 집안에서 짐작건대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이웃 고을인 울산부에 소속된 한 관리가 저지른 일이라 내심 덮어주고 싶은 마음 구석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었다. 분하고 분했다.

그런데 근자에 들리는 풍문에 귀하디귀한 암행어사께서 언양에 곧 당도한다고 했겠다. 이 어찌 가뭇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 같은 소식이라. 암행어사님이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타는 마음에 생수라도 부은 듯이 집안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언양 북면(北面) 천소리(泉所里)에 있는 큰집에서는 암행 어사또에게 울릴 청원서를 작성할 굵고 튼튼한 백지를 장터 지전(紙廩)에서 샀다. 집안 어른들은 집안의 장년층 중 글씨깨나 쓰는 몇몇을 골라 불러들여 대청마루에 앉히고 밥도 든든히 먹이며 긴긴 이야기 끝에 이윽고 절절한 청원서를 써 내려가게 하였다. 글씨는 꽤나 잘 써갔지만, 절박한 맘에 청원서 종이 가 참 볼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랴, 궁여지책인 것을... 암행어사에게 울리기 위해 그들이 썼던 청원내용을 아래와 같다.

“어사님, 앞드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여러 대 동안 성심을 다해 돌봐오던 정말로 소중한 선산에 어느 날엔가 울산부 소속 하급관리 하나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몰래 이장시켰습니다. 몇 번이고 이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에 대하여 시신을 파내어가라고 관청에 나가 탄원서를 올리고 호소하여, 시신을 이장하라는 처분을 받아 내었지만, 그 하급관리는 자신 상관의 권세를 이용하여 딱하니 버티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놈이 법을 어기고 권세에 빌붙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고 옥에 가두고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어사또님께 앞드려 울며 청원 드리오니, 부디 명철하신 판단을 내리시어 그놈이 자신의 조부 시신을 파내어 이장해 가도록 명령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 후손들의 뼈를 깎아내는 슬픔이 씻길 것이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사연에 대해, 암행어사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관리의 위세에 기대어 양반을 업신여기며 해하는 이런 일에 놀라울 따름이다. 즉시 그놈을 잡아들이고, 시신은 다시 파내어 가게 할 것이다. 선산을 관할하는 기관장은 이에 따라라.”

암행어사는 자신의 마패(馬牌)를 꺼내어 붉은 인주에 찍더니 마패 도장을 탄원서에 광광광, 세 번 찍어 증명을 해 주었다.

과연 송씨 집안은 그들이 주장했듯 그 못된 관리로부터 자신들의 선영(先塋)의 온전성을 회복하였을까? 그리고 정말 송씨 집안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 그 울산부 소속 관리는 정말 고의로 그런 못된 관리였을까? 여러 의문이 남는 고문서 한 장이다.

## 조선 나라, 산송 나라

조선 시대에 산소 등 분묘와 관련된 소송을 산송(山訟)이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소송은 현존하는 분쟁 관련 고문서 내용 중에 거의 80% 이상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부분이다. 조상의 산소를 좀 더 좋은 명당에 모시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인 산송이라는 다툼은 특정 집안 간에 길게는 백 년, 이백 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계속되기도 하였고, 관아와 지역사족 간의 힘겨루기 장면도 제법 펼쳐져 이를 ‘향쟁(鄉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산소(山所)라는 곳은, 그 집안 조상의 시신을 모신 유형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같은 집안사람들의 혈연적인 맥락을 이어주는 정신적인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산소는 사대부 집안사람들을 불문하고 ‘쉬라인(Shrine)’ 곧 사당(祠堂)이요, 성역(聖域)이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에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불교의 장례풍습이었던 화장(火葬)이 유교를 기치로 했던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매장(埋葬)으로 바뀌어 갔다. 이와 함께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인해 음택(陰宅)으로 좀 더 좋은 산지와 위치를 정하여 조상을 매장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부모와 조상의 신체와 혼백을 잘 모시고자 하는 효(孝)의 정신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과 후손들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영화롭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돌아가신 조상을 좋은 산지에 잘 모시는 것이 곧바로 당시 사람들의 효의 척도였다.

본래 전통사회에서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산림천택 여민공지(山林川澤 與民共之)” 즉 ‘산림과 하천 등은 백성들과 공유하여 널리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즉 임야는

그 누구의 사유(私有)가 아닌 공유(共有)의 영역이던 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법률에 의하면, 예법적(禮法的) 차원에서 사대부의 선영지역 일정 범위 안에서는 목축이나 경작 등을 금지하였다. 그러면서도 산소의 영역을 해당 산지의 용호(龍虎)지역 바깥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무분별한 임야의 사유화를 막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은 이념, 법은 법일 뿐, 현실은 급격히 변해갔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산지에 분묘를 먼저 쓴 사람들이 그 지역 주변의 임야들을 무분별하게 소유하게 되는 관행이 늘어났고, 국가에서도 이를 법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용인해주는 상황이 되어갔다. 만약 갑돌이가 먼저 자신의 조상을 명당자리에 매장했다라도, 명당은 명당이니, 울돌이도 그 근처에 제 조상을 묻고 싶은 것이요, 명당의 기운을 빼앗길까 두려우니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반과 양반 사이에 분쟁은 물론, 양반과 상민의 사이에서도 서로 양보하는 바가 없었다. 선점된 분묘 근처에 누군가가 몰래 조상 시신을 매장하면 이는 남의 땅을 훔쳐 몰래 매장했으니 ‘투장(偷葬)’이요,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능멸하며 억지로 묻었으니 ‘능장(勒葬)’이라고 불렀다. 이 두 단어가 조선 시대 산송관련 고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산송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승리하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일까? 단순히 조상에 대한 효와 집안의 성역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까? 이러한 분쟁들의 원인을 단순히 ‘명당’이나 조상에 대한 ‘효’ 사상이 다일까? 물론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일단 조상을 특정 산지에 매장하고 나면 그 후에는 그 분묘의 주변에 있는 토지, 즉 산지와 그곳에 성장하고 있는 소나무, 참나무 등등의 송추(松楸) 즉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동시에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연지사, 산소를 위시한 주변 지역을 보호, 보장해 조상을 모시는 분묘의 존엄성과 평온성에 대한 침범과 침해를 막고자 했던 목적에서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분묘 주변의 토지와 그곳의 수목들은 관행적으로 분묘를 선점한 집안의 소유로 되어갔던 것이다. 조선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방관을 등에 업고 특정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한 사유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갔다. 산지에 대해서는 화전(火田)화하여 작물생산을 할 수가 있었고, 취사와 난방, 건축 등을 목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산지의 나무는 매우 귀중한 재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산소 주변의 일정 지역은 금양(禁養)지역으로 여겨져, 그곳에서 자라난 소나무 등 목재까지 산소 주인의 후손들이 차지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자라난 수목들은 주인의 허가 없이 타인이 벌목할 수 없는 배타적(排他的)인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산송의 한 일면으로 수목에 대한 불법적 벌목인 작벌(斫伐)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조상에 대한 효와 체면, 예식의 차원을 넘어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산소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러한 희소가치 때문에 관련 분쟁인 산송은 더욱더 끊임없이 발생하고 심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 산송 분쟁의 해결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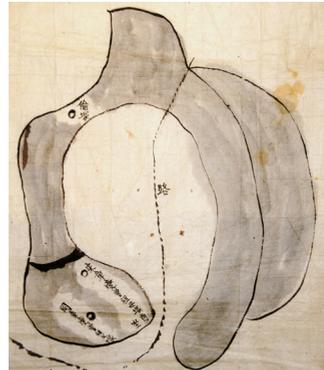
우선 타인 소유의 산소 지역을 침범하여 매장을 하거나, 그 주변의 수목을 벌목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산소의 소유자는 원고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할 관청에 청원서이자 소장인 소지(所志)를 제출하게 된다. 소지를 접수한 관청은 원고의 주장에 의거하여 피고인 상대방을 소환하여 심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소지의 좌측 하단에 관행적으로 ‘피고를 성화(星火)처럼 잡아들어 오라’라는 처분 문구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돌려주게 된다. 여기서 ‘성화’는 별뿔별, 즉 우성을 말하는데, 별뿔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신속하라는 의미가

다. 이는 소송 관청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잡아 데려오라.’ 이 문구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관청에서 공권력을 실행하는 포졸이나 누군가를 보내주겠거니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지를 제출한 원고 측 당사자가 직접 피고를 데리고 와야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관청의 지시가 적힌 소장을 제시하며 관청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피고는 그에 응했을까? ‘네, 얼른 같이 가서 시비곡직을 따져 보시지요!’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또는 분명히 피고는 원고를 피해 이미 자기 집에서 자취를 감추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리하여 어디 사는지는 알고 있으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피고 찾아 삼만 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급해진 원고 측은 몇 번이고 피고를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할 테지만 연기처럼 자취를 감춘 피고를 원고의 자력으로 찾고 잡아 송정으로 데려오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원고는 몇 차례 피고를 찾아보았으나 출석에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소지로 제출해 관청에 보고하며, 공권력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제야 관청은 피고 소환의 담당자로 ‘면주인(面主人)’이나 ‘두민(頭民)’, ‘유향소(留鄉所)’ 등을 지정해 주었는데, 이들은 피고가 거주하는 면리 단위의 행정과 민정, 풍속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환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청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인 체포나 조세 체납자를 소환하는 등의 업무를 보는 ‘차사(差使)’를 발령해주어 피고를 잡아들이게 했다.

산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산지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령에게 요청해 피고를 잡아 들여 원고의 관할 지역 송정으로 송치시켜 서로 대질신문을 하도록 해야 했다. 즉 원고가 소지를 자기 거주지 관할 관청에 올렸을 때 그에 대해 기관장은 피고를 소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써주며 소송의 대상물인 산지가 있는 곳의 관할 수령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한 뜻으로 ‘산재관(山在官)’이라는 용어를 추가로 써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처분에 따라 해당 관할 수령의 요구에도 피고 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기관장은 사건과 관련한 공문인 관문(關文)을 산재관 측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산송 관련 도형(圖形)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이렇게 하여 원고와 피고가 관청에 출두하게 되면 대질신문과 각종 증거문서 제출,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심리를 시작하게 된다. 투쟁 등의 사건의 경우, 원고는 관청에 사건의 현장인 산소 지역에 현장 검증 요청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관청에서는 차사를 파견해 원피고의 입회하에 현장 검증 간략한 도면인 산도(山圖) 혹은 도형(圖形)을 그려오게 하였다. 원고 측의 산소로부터 피고가 투쟁한 곳까지 일정 거리 이내인 경우, 피고는 곧바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양한 심리를 통하여 관청에서는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판결문을 결송입안(決訟立案)이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의 경우 결송입안이라는 판결문 작성까지 가지 않고, 소지 상에 내려진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측이 자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피고는 ‘다시는 투쟁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 혹은 ‘투쟁한 시신을 며칠 내로 파내어 가겠다.’ 등의 다짐(拷音)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 주었다.

## 파내어 가라!

1900년 한여름에 전남 고흥군 관아의 대문 옆 벽에 방(榜) 하나가 붙었다.



불법 분묘를 이장하라는 공지문인 계방(揭榜) ©토지주택박물관 소장

“(고흥군) 두원면 반산리에 소재한 점암지역 임야는 송씨 집안의 선산(先山)인데, 그 용꼬리(산줄기가 발원하는 지점)에 어느 놈이 몰래 자신의 조상을 매장한 분묘가 발견되었다. 이번 달 15일 내로 해당 분묘를 파내어 가도록 하라. 만약 기한을 넘길 시에는 결단코 관청에서 담당하여 강제로 파내어 버릴 것이니 그리 알라. 경자년 윤8월 2일 고흥 군수”

경자년 윤8월에 작성된 이 계방(揭榜) 역시 송씨 집안에서 자신들의 선영지역에 다른 사람이 몰래 분묘를 쓴 것에 대하여 이를 퇴거시켜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고흥 군수는 몰래 묘를 쓴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하고 시신을 직접 이장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응 시에는 강제로 분묘를 철거하겠다는 방을 내건 사례이다. 보기에 너털너털한 고문서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계방은 현존하는 유일 문서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의 산송은 그 발생 원인이 집안의 체면과 효의 문제였건, 아니면 재화에 대한 욕망과 실리의 문제였건 간에 당시 정신적 존엄과 물질적 권리에 대한 끈질긴 인간들의 군상을 투영해주는 치열한 싸움이었다. 누군가는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시 사람들은 산송 관련 고문서 속에서 일제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파내어 가라! 우리는 살아야겠다!”

## 작가 소개

김성갑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계약문서인 ‘명문(明文)’으로 박사논문을 썼고,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사회(공저)」와 「19세기 불안김씨 가사전장 환퇴분쟁」(「장서각」12), 「조선후기 적몰 위태 회복과정 연구」(「고문서연구」28) 등을 썼다.

참고자료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法文社, 1974

전경묵, 「조선후기 산송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전경묵,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한다, 휴머니스트, 2013

## 투장(偷葬)의 묘수

이월로 접어들면서 별 바른 자리에 눈 녹은 물이 질척거렸다. 낮게 엮드린 초가지붕에서  
도 고여 있던 지지랑물이 흘렀다. 바람이 가벼워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발그  
레 혈색이 돌았지만 까맣게 입술이 탄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을 떠올리며 가볍게 몸을 떨었다.

“입춘이 지났어도 별이 어린 계집애가 짠 무명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닿는구나.”

마루 끝자락에 걸리는 햇빛을 밟고 선 김령(金玲)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요형(耀亨)이 한  
걸음 뒤에 서 있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츰 곁을 찾겠지요.”하고 말을 끊었다. 요형  
은 아까부터 서쪽 언덕으로 눈길을 던져두고 있었다. 요형의 눈 끝에 증조부가 심었다는 감나무  
두 그루가 허공을 향해 마른 가지들 뻗어놓고 있었다. 요형은 겨우내 감나무 가지 끝에 까치  
밥 서너 개가 별처럼 걸려 있던 것을 생각했다.

‘까치밥이 설을 넘기도록 남아 있다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했던가!’

설날 아침까지만 해도 단단하게 매달려 있던 까치밥이었다. 그러나 요형은 향교로 세배를 다녀  
오던 길에 문득 서쪽 하늘이 웅한 것을 깨달았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작은 등불처럼 매달려 있  
던 까치밥이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거나 굶주린 새의 밥이 될 줄 알고는 있었지  
만, 막상 까치밥이 사라지고 나자 요형은 마음 한자리가 싸늘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에 애써  
마음을 두지 않는 요형이었지만,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온 까치밥이 사라지자 큰 상실감과 함  
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닥쳤다.

“그깟 까치밥 때문에 대장부의 눈빛이 흐려지다니, 허 참.”

아버지 김령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령도 깨름칙한 기분으로 마음이 불편했다. 설을  
앞둔 어느 날, 안동의 손 씨 일가가 서북쪽 언덕에 투장(偷葬)을 한 것이었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 모두 뒤숭숭하게 설을 보냈는데, 최근 손흥겸(孫興謙)이 죽자 그의 묘를 또다시 서쪽  
언덕에 쓰겠다고 기별해왔다. 그 일로 정월 초이튿날부터 문중 사람들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  
다. 손 씨 사람들에게 묘를 쓰지 말 것을 정중하게 부탁한 후, 집안의 종들을 보내 번갈아 서북  
쪽 언덕을 지키게 해두었다. 그러나 손 씨 일가가 밤중을 틈타 몰래 묘를 써버렸다.

“손 씨 사람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투장이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소장(訴狀)을 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수령이 불가하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손 씨 사람들이 막무가내  
로 투장을 했으니 나라의 법도가 지엄하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서쪽 능선으로 향하는 김령의 눈길이 파랗게 곤두섰다. 요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백호(白虎)의 기세로 마을을 지켜주던 서쪽 능선에 손 씨 묘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겨우내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마을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붉은빛을 띠었다. 서쪽 능선에 기댄 여염집에서는 닭들이 알을 낳지 못했고, 한겨울에 때 아니게 나타난 구렁이 때문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일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넛만 모이면 모두 손 씨 무덤을 손가락질했다. 김령이 여러 차례 관청을 찾아다녔지만 투장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손 씨 사람들이 지금……”

늙은 종 양금(良金)이 허연 입김을 뿜어내며 다급한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다. 양금의 이마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돌과 흙을 저 나르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양금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김령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요형은 태산처럼 여겨지던 아버지 김령의 어깨가 사태 나듯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요형이 양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재촉했다.

“봉분을 올리는 중입니다.”

양금의 말을 들으면서 요형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의 땅에 몰래 장사를 지내는 투장은 그 긴박함이나 비밀스러움으로 인해 투장 당시 봉분까지 올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단 땅을 파고 관을 내려놓고는 거칠게나마 흙을 덮어두기만 하면 땅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무덤을 파헤칠 수 없었다. 그런 탓에 파묘한 자리는 좋은 투장 장소가 되었다. 원래의 무덤이 옮겨가면서 파놓은 자리는 힘들여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투장 하는 사람들은 손쉽게 무덤을 쓰고는 손을 탁탁 털었다.

“이 사람들이…… 기어이……”

김령이 땀들로 내려서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는 사이 대문 밖으로 마을 장정들이 오십여 명이 모여들었다. 요형은 거무칙칙하게 뻗어 있는 감나무 가지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겨울 까치밥이 매달렸던 자리를 눈으로 짚으며 요형은 그 자리가 꼭 백호의 별자리 가운데 하나인 묘수(昴宿)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묘수가 백호의 몸을 이룬다고 했는가? 그러나 정확치 않다고 요형은 생각했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겠다고 저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김령은 양급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았다. 요형이 손을 앞으로 모아 잡았다.

“아버님……”

“가자.”

김령이 굳은 얼굴로 무연히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웅기충기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김령의 뒤를 쫓으며 서쪽 언덕으로 올라갔다. 위쪽에서 일꾼들이 힘쓰는 소리가 들렸다. 요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아버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벌어지면 큰일입니다. 차라리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김령은 깨끗하게 목을 세우고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갔다. 숲이 우거진 곳에는 아직도 잔설이 단단하게 남아 있었다. 저만치 손 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 봉분을 반 넘게 올려놓은 상태였다.

“당장 멈추어라.”

김령이 허리를 깨끗하게 세운 채 호통을 쳤다. 그 바람에 흠을 저 나르고 봉분을 올린 일꾼들이 일제히 손을 놓았다.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덩치 큰 장정 서너이 김령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요형이 김령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마을 사람들이 진을 치듯 김령을 중심으로 간격을 벌려 펼쳐 섰다. 잠시 사나운 눈길이 오갔다. 그러다가 별안간 손 씨 일꾼 중 손이 솔뚜껍처럼 크고 검은 사내가 마을 사람의 목살을 틀어쥐고는 공, 하고 힘을 쓰며 저만치 내동댕이쳤다. 아이쿠, 나 죽네. 줄지에 일격을 당한 마을 사람이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괜히 나서서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저자들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다.”

김령은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제지했다. 당장이라도 패싸움이 날 것처럼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서로 기세를 세우느라 눈을 부라리고 콧길을 씩씩댔다.

“저들이 노리는 바가 그것이니라. 싸움을 하게 되면 분명 승사를 걸어 일을 어렵게 만들 터이니, 함부로 나서서 빌미를 만들지 말라.”

마을 사람들이 주먹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사이, 상복을 입은 손 씨 사람들 몇이 바위 뒤에서 몸을 드러냈다. 그와 동시에 일꾼들이 뒷걸음으로 물러났다. 김령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 씨 사람들 향해 정중하게 말을 붙였다.

“수령이 분명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이렇듯 무례를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यो? 나라에서 금하는 일을 벌이고도 뒷일이 무탈하기를 바란단 말이오.”

요형은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손 씨 일가를 예의주시했다. 수령의 경고를 무시할 만큼 대담하고 무도한 사람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상복을 입은 손 씨 사람들은 김령의 말을 듣고는 입술을 비틀어 물었다.

“지금 이렇게 몰려들어 패악질을 하며 망자를 욕보이는 짓을 서슴지 않는 당신들이야말로 어찌 무탈하기를 바란단 말이나?”

상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샷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상복을 자기 손으로 북북 찢어댔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상복을 쥐어뜯으며 아이고, 하며 곡을 시작했다. 상주가 곡을 하자 일꾼들은 쌓던 봉분을 다시 파헤치며 돌과 흙을 사방으로 흩뿌려댔다. 김령과 마을 사람들은 느닷없는 사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주춤 뒷걸음을 놓았다.

“저 사람들이 떼로 달려들어 상복을 찢어발기고 무덤을 파헤친다. 천지가 두렵지 않고서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극악한 패륜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손 씨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함창을 했다. 그리고는 상주들이 타고 왔던 말에 올라 내달렸다. 그들은 일부러 상복 자락을 찢어발기며 큰 마을을 돌며 “오천(烏川) 양반이 친히 종들을 거느리고 무덤을 파헤쳤다. 그 패악한 무리들에게 맞아서 옷이 이렇게 찢어졌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아버님, 저들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요형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마을사람들이 김령 곁으로 모여들었다. 김령은 함부로 파헤쳐진 무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일꾼들도 어딘가로 모두 흩어지고 없었다.

“천지가 무심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

김령이 꿈, 하고 된숨을 쉬고는 성큼 걸음을 내디뎠다. 마을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요형은 아버지 뒤를 따를까 하다가 몸을 돌려 파헤쳐진 손 씨의 무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꾼들은 약속이나 한 듯 평토까지만 헤집어놓았을 뿐 더는 파헤치지 않았다. 요형은 손 씨 일가의 치밀한 계략에 허를 내두르면서, 혹시나 이번 일로 김 씨 문중에 대한 세간의 인심이 나빠질 것을 걱정했다.

해가 기울면서 숲으로 어둠이 스며들었다. 요형은 조금씩 몸을 덮어오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죽음이 이렇지 않을까? 요형은 생각했다. 하루가 저물어가듯 한 생애도 이렇게 어둠의 한 가운데로 스며들 것 같았다. 마침내 어둠이 숲을 가득 채우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우람한 나무가 하늘을 가린 탓에 달빛 한 점 스미지 않았다. 숲이 무덤 속 같았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온통 어둠이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며 어둠의 골짜기로 날아갔다. 요형은 까마귀 날아간 자취를 더듬듯 허공으로 눈을 들었다. 저만치 손바닥만큼 터진 하늘로 겨우내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까치밭처럼 별 몇 개가 보였다. 묘수라……. 요형은 뒷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별이 선 자리가 머지않아 큰 변괴가 일어날 조짐처럼 보였다. 요형의 직감은 한 달 만에 현실이 되었다. 감나무 가지에 새잎이 돋고 감꽃이 하얗게 맺히던 3월 어느 날, 능양군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등극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요형은 해갈이를 하느라 감이 하나도 맺히지 않았던 계해년 그해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광해군 15년이라고 썼던 일기의 간기(刊記)를 먹물로 지우고는 인조 1년이라고 새로 써넣었다.

## 작가 소개

문신



2004년 세계일보와 전북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으로 본격적인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물가죽 북>, <결을 주는 일> 등을 펴냈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넓히며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동시 당선,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 당선되었다. 현재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서로는 <현대시의 창작방법과 교육>이 있다.

# 사람을 불러 함께 아들의 뒷자리를 돌아보다

삼화 정용연

1617년 3월 1일

김택룡의 노비가 산을 보고 뒷자리를 잡는 일 때문에 이자정을 초대하러 말을 끌고 회곡(檜谷)으로 갔다. 김택룡은 편지는 쓰지 않고 노비만 보내 이자정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 이자정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지난번 이날쯤 오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1617년 3월 2일

이자정이 김택룡의 집으로 왔다. 와서 말하길, “사람과 말을 보내주지 않으셔서 오늘에서야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택룡은 이자정과 말을 끌고 간 노비와 같이 어긋났나보다고 생각했다. 김택룡과 이자정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되자 사랑채에서 잤다. 김택룡의 셋째 아들 김각도 함께 잤다.



1617년 3월 3일

아침 식사 후에 김택룡은 이자정과 김숙, 김각 두 아들, 권전룡과 함께 가동(橫洞)으로 갔다. 그리고 사현(砂峴)을 지나 산의 형세가 융결(融結: 산의 기운이 뭉쳐 모여 있음)함을 보았다. 김택룡은 지난 2월 26일에 왔을 때 생각해 둔 곳이 있었으므로, 이자정에게 함께 오르기를 부탁하였다. 함께 살펴보니 자못 형세가 있었는데, 태좌진향(兌坐震向: 서쪽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함) 언덕을 찾아 보여 주었더니 이자정이 대단히 칭찬하였다. 김택룡은 곧 쇠를 놓아 표지를 하고 이어서 산수의 방향을 두루 살펴보았다.

우측 백호(白虎)는 높고 가파르고 돌이 있는 듯했지만, 모두 사창(四倉)의 위치에 있어 이자정이 해는 없다고 하였다. 또 동산 북쪽으로 내려오는 혈 자리가 평평하여 역시 안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자정이 매우 칭찬하였다. 김택룡은 그곳에도 역시 쇠를 놓고 하산하였다. 오후에 이자정, 권전룡, 아들 김숙이 가동의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김적의 뒷자리를 잡았다. 저녁이 되자 김택룡은 산에 올라간 여러 사람이 함께 한곡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적이를 묻을 산을 이제 선택하였구나. 가동의 사현이 좋은 땅으로 근처에 없는 드물고 귀한 산이라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밤이 되자 김택룡은 사랑채에서 숙과 함께 잤다.



## 산의 기운이 모여있고, 산수의 방향이 훌륭한 명당 - 사람을 불러 함께 아들의 뒷자리를 돌아보다

\* 출전 :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조성당일기는 김택룡이 쓴 일기로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은 1612년(김택룡 66세), 제2권은 1616년(김택룡 70세), 그리고 제3권은 1617년(김택룡 71세)에 썼다.

\* 저자 : 김택룡(金澤龍, 1547 1627)

조선중기 학자이자 문신으로 자는 시보(施普), 호는 와운자(臥雲子),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아버지는 양진(楊震)이며 안동(安東)사람이다. 조목(趙穆)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58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이 되었다. 임진란에는 군무에 진력하였고,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전쟁 후에는 경독관(耕督官)이 되어 전후의 농경을 장려하여 백성을 정착시키는 데 힘썼다. 이후 관직 생활을 계속하다가 광해군 때 낙향하여 향촌교화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 조선 시대 풍수 - 뒷자리 선택

망자가 물길 산소를 정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무덤 자리를 어디에 결정하느냐에 따라 집안과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관(地官)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지관이란 풍수지리설에 따라 뒷자리나 집터의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지사(地師) 또는 풍수라고도 하였다. 김택룡의 집과 죽은 아들 김적의 집에서는 김적의 뒷자리를 고르느라 각각 지관(地官)의 도움을 받아 이리저리 신중하게 살펴본다. 여기저기 점찍어둔 자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잘 성사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김택룡이 집안의 선조 무덤이 있는 가동으로 가서 몇 군데를 살핀 후 괜찮은 곳을 점찍어 쇠를 놓아 표시했었다.



태좌진향(兌坐震向) - 서쪽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함

## 작가의 한컷



佩鐵(패철) - 무덤 자리를 정할 때 風水家(풍수가)나 地官(지관)이 썼던 나침반

### 작가 소개

정용연



작가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그린 "정가네소사" 1,2,3 권이 있고 현재는 고려말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다룬 "목호" 출간 준비중이다.

## 흉(凶)은 그저 흉(凶)일 뿐

내게는, ‘좋은 어른이란 모름지기 저런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 어른이 계시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큰 이모부님이신데, 아버지를 일찍 여읜 내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로, 6.25 때 고향(북쪽에 속한 강원도 철원)에서 청진기 하나만 목에 걸고 단신 월남해 평생 소아과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사셨던 분이다.

이모부님에 관한 수많은 추억 중 생각나는 한 가지는, 어릴 적 날 예뻐하시다 가도 짐짓 화난 목소리로 이런 우스개를 하신 일이다.

“어휴, 난 남양 홍씨(南陽 洪氏)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우리 아버지가 남양 홍씨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이모부님은 경주 김씨(慶州金氏)셨는데, 선친 대에 남양 홍씨 집안과 선산으로 얽힌 오랜 송사가 있었고, 결국 선친은 그 송사를 겪으며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남양 홍씨들이 때로 찾아와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마치 내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송구하기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산 다툼은 결국 뒷자리 다툼이었을 것이고, 이는 후손들의 발복(發福)이 걸린 일이니, 그 쟁투가 얼마나 치열했을까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

조상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경심은 신앙에 가깝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자식이 내게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건만, 왜 유독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후손이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르면 당장 화를 불러오는 속 좁은 분들이라 여기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런 두려움은 ‘뒷자리’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게 만들어, 소위 ‘명당’이라는 뒷자리에 조상의 뼈를 몰래 묻는 ‘투장’, ‘암장’까지 성행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었다.

<별순검 - 조선과학수사대> 에도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

습첩(보쌈과 비슷한 관습으로, 과부가 새벽에 성황당 근처에서 제일 처음 만난 성인 남자를 따라가는 것) 나갔던 딸이 사라졌다고, 한 남자가 순검들을 찾아왔다. 대외적으로는 딸이 죽었다고 하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사실은 청상이 된 딸의 장례를 위해 습첩을 허락했던 것이다. 미리 딸을 데려갈 남자까지 알아두었는데, 막상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 있는 걸까.

며칠 후 과부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것도 거짓장례를 치르고 짙 인형을 넣어두었던 바로 그 자신의 관 속에 누운 채. 수사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범인의 윤곽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과부의 시체가 의심스러웠다. 알고 보니 죽은 남자의 동생이 형수를 짝사랑했던 것이 드러났다. 형수가 습첩을 나간다고 하자 눈이 뒤집혀 범행을 저질렀나 했지만, 범인은 의외의 인물로 밝혀졌다.



MBC 드라마 <별순검 시즌1> 2화<관속의 딸> 중  
거짓장례를 치르고 살아 있을 거라 믿었던 딸의 주검 앞에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  
©MBC

그는 바로 죽은 과부의 할아버지가 밭자리를 가지고 송사를 벌인 자의 아들이었다. 범인의 아버지는 송사에서 죽고, 명당 밭자리는 죽은 과부의 집안 소유가 되었다. 이후 범인의 집안에 자꾸 흉사가 일어나자 그는 이게 모두 다 그 밭자리 때문이라 생각하고 원한을 품게 되고, 급기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거짓장례 묘터를 알아봐 준 것도 범인이었다. 그곳은 흉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뱀굴 근처였고, 과부를 죽여 기어이 그곳에 묻었던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죽은 과부의 아버지는 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 선친은 조상님들 그 묘터에 모시고자 송사 불사하며 갖은 애 다 쓰셨다 했소. 그 좋은 묘터에 누운 조상님들, 참으로 잘도 굽어 살피셔서 꽃 같은 내 딸 저리 데려가셨는가 싶소. 참 좋은 묘터다, 참 좋은 묘터.”

그리고 딸을 위해 다시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데, 집안 형님이 달려와 “어디 이 흉한 시체를 묻겠다냐는 것이냐. 아버님께서 이 터 지키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소리 높이며 그를 말린다.

“터고 뭐고 다 필요 없소. 난 내 자식 편히 가게 해주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소.” 형님을 밀치며, 기어이 관을 내리는 그의 마지막 말은, 좋은 밭자리가 줄지도 모르는 막연한 복을 위해 눈앞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자의 절절한 아픔이 느껴진다.

2012년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대풍수>는 고려 말 공민왕이 ‘자미원국’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미원국’은 황제의 자리라 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머무는 자리를 말한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고려 왕실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자미원국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 싸움이 쉬울 리 없고, 차지하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 피 튀기는 전쟁이 된다.

‘풍수지리, 사주 명리, 관상이라는 동양사상을 집대성한 생활밀착형 드라마’라는 기획 의도에서 밝혔듯 이 드라마 속에는 운명을 위해 하늘과 땅을 읽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지상, 신돈, 무학대사 같은 종교인과 그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인물들 말이다. 그리고 그들 중 단연코 흥미로운 인물이 ‘반야’다. 반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성인데, 그 족적을 살펴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SBS 드라마 <대풍수>에서  
자미원국(紫微垣局)을 찾은 지상(지성 분)과 자미원국 모습 ©SBS

반야는 천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임금님의 무덤 터인 ‘어금혈’에 어머니의 뼈를 암장했다. 공민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왕자를 낳을 사주’로 조작한 가짜 사주를 궁으로 집어넣었고, 결국 공민왕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고려의 왕이 된다. 이성계에 의해 실각하면서 그녀의 말로는 험난했지만, 운명과 싸우겠다는 반야의 의지만큼은 이성계를 능가한다. 운명에 저항하기 위해 운명을 조작한 여인, 그녀는 대체 운명을 믿은 걸까, 우습게 여긴 걸까.

비록 자미원국의 신탁에 의해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고는 하나(이 부분 때문에 쿠데타를 합리화한 드라마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 저변에는 권력의 부패, 고려 민중의 분노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등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무엇보다 왕이 되고자 했던 이성계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자미원국이 아니라, 자미원국 할아버지가 등을 떠밀어도 새로운 왕조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드라마의 첫 장면에서 개경으로 진격하려는 이성계와 그를 돕는 대풍수 지산이 개경을 내려다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 드러난다. 실패하면 반역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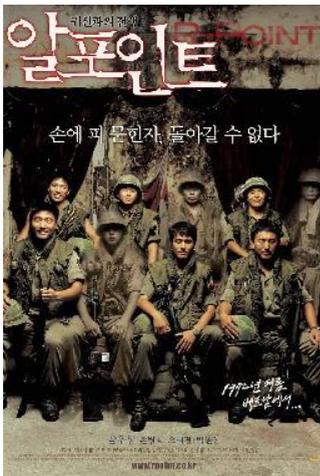
갓지 싶어 주저하는 이성계에게, 대풍수는 ‘성공하면 혁명’이라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인다.

“장군께 천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천명을 바꿀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점지한다는 하늘의 계시는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 하늘도, 운명도 인간의 정성과 의지 앞에선 그 길을 내어준다.

추석 즈음에 개봉하는 영화 <명당>이야말로 본격적으로 ‘명당’을 놓고 싸우는 이야기라 하나, <관상>이 그랬듯 정작 중요한 것은 ‘관상’이나 ‘명당’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는 게 주제가 아닐까 예측해본다.

좋은 뒷자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신이 완벽하게 부패하여 백골만 남을 수 있는 양지바르고 바람 잘 통하는 곳이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공간으로 떠나야 한다. 덜 떠나거나 못 떠나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떠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 떠날 수 있느냐다. 죽은 자들의 떠나지 못한 마음은, 남은 자들에겐 공포와 죄책감이 되어 머문다. 이 공포가 집약된 장소는 곧잘 영화의 소재가 되는데, 2004년 작 <알포인트>야말로 내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공포 영화의 수작이다.



영화 <알포인트> 포스터 ©씨엔필름

알포인트는 ‘로미오 포인트’의 악어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실종자 구조작전 지역을 말한다. 1949년 1차 베트남전 당시 호찌민의 게릴라군과 교전 중이던 프랑스군 소대 12명 전원이 여기서 실종됐으나, 끝내 실종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1970년대 2차 베트남전 시기까지 프랑스군과 미군 총 65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화는 1972년 한국 맹호부대 소속 소대원 9명이 실종됐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실화를 기록한 영국의 중군기자는 귀국 후 죽기 직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촬영된 영화는, 촬영 장소에 얽힌 괴담까지 더해져 그 분위기가 더욱 으스스하다. 이 영화의 진정한 공포는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귀신이나, 이미 죽은 병사가 이제껏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여괴담류의 공포보다, 살아있는 병사들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연기처럼 스멀스멀 퍼져가는 내면의 공포다.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해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절망감. 우리

는 끝내 여기서 죽고 말 거라는 비관적인 확신이 존재를 삼켜 서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만든다. 그들의 절망은, 이미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이들의 절규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왜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했는가.’ 왜 우리는 죄 없는 소녀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죽여야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포의 시작일지 모른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은 인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코스요리다.

별순검에서 과부를 죽인 범인의 인생에 일어난 나쁜 일들은, 뒷자리가 그 원인이 아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과정의 하나일 뿐. 하지만 그 흉을 막아 보려, 보복하려,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하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흉이 그의 인생을 잠식해버렸다.

흉(凶)은 흉으로 그저 받아들여야. 언젠가는 끝나겠지. 아무 흉도 겪지 않은 인간의 얼굴이란 얼마나 따분할까 말이다. 복(福)을 받기 위해 명당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기보다 차라리 오늘 내 옆의 가족과 동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선한 인(因)의 씨를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

## 작가 소개

### 홍윤정



1999년에 KBS 시트콤 작가로 데뷔, 드라마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은 영화 <수상한 그녀>, <반창꼬>, <블랙가스펠>, <최강로맨스> 등이며, <수상한 그녀>로 춘사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 우리 조상의 '뒷자리' 산도(山圖)

이번 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서는 조선 시대 산소를 그린 그림인 산도에 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소를 그린 그림으로는 묘산도(墓山圖), 지방도, 명당도(明堂圖) 등이 있는데요, 그 중 묘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산도란 무엇인가요?

뒷자리나 산소를 담은 그림을 통칭에 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쓰임새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먼저 가문의 묘를 표시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묘산도'가 있고, 풍수지리에서 상징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명당에 자리 잡은 뒷자리를 그린 '명당도'가 있습니다. 또, 마을 전체의 지세를 묘사한 지방도 또한 산도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명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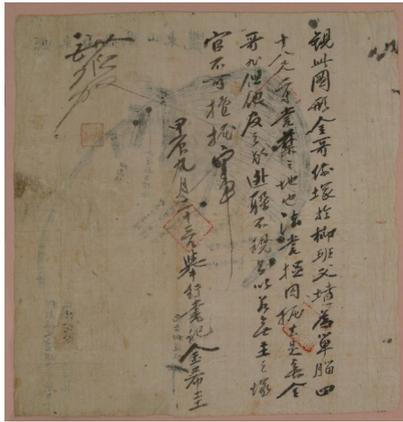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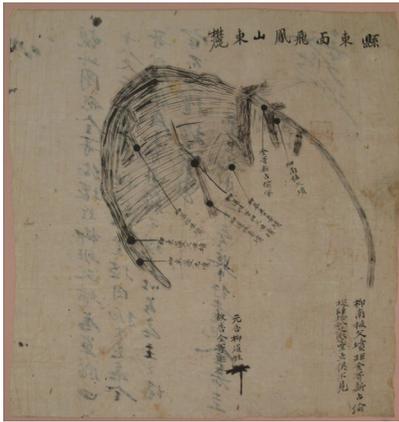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상징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명당에 자리 잡은 뒷자리를 그린 그림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 Q2. 조선 시대 집안의 뒷자리를 그린 그림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 시대 조상의 육체가 묻힐 뒷자리를 찾고, 묘를 관리하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 섬기는 제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좋은 뒷자리에 조상을 안치하고, 잘 관리하는 일은 곧 자손의 도리를 지키고 가문의 권위와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뒷자리의 선택에 따라 가문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뒷자리를 둘러싼 뒷자리 소송 사건은 조선 시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산도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진년에 유남식과 김가의 산송(山訟)중에 작성된 산도>

김가가 류남식 아버지의 묘역에 투장한 묘를 파가도록 해달라는 류도성의 소지에 의해 행해진 산송 중에 작성된 산도  
(출처: 옛문서생활사박물관)



<무인년에 전주 유씨가와 이우민의 산송 중에 작성된 산도>

무인년 2월 초6일 전주 유씨가의 모인과 이우민 사이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산송이 발생하였을 때 두 묘의 위치 등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령의 명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  
(출처: 옛문서생활사박물관)

### Q3. 뒷자리를 둘러싼 산송(山訟)이 조선 시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송은, 말 그대로 풀면 ‘산과 관련된 송사’입니다. 여기서 산은 묘지 또는 묘지 주변 영역을 가리킵니다. 즉, 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입니다. 산송은 조선 후기에 양반 가문치고 얽히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려 시대 화장 문화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 유교식 매장 문화로 전환되었고, 묘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주자가례>와 결합하면서 산송이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유교적 질서 확립과 함께 길지를 추구하는 풍수지리, 산지라는 경제적 이권 등도 산송의 주요한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4. 산도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산도의 종류는 다양하였으며 남아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현재 산도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도 중에서도 지방도는 현재의 지도와 비교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명당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산도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숙빈최씨소령원도(淑嬪崔氏昭寧園圖)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숙빈최씨소령원도>

보물 제1535호이며 숙빈 최씨(1670~1718)의 무덤인 양주의 소령원(昭寧園)을 그린 묘산도.

산도의 형식을 취했으며 가운데 묘소와 왼쪽의 제청(제사와 관련된 건물),

오른쪽의 비각(비문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배열하고 아래쪽에는 전답(농사짓는 땅)이 그려져 있다.

(출처 : 국가문화유산포털)

**정 리** 하해빈(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도움말** 김형수(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수석연구원)

**발행일** 2018년 9월 1일

**발행처** 한국국학진흥원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36605)  
전화 054-851-0754  
홈페이지 [story.ugyo.net](http://story.ugyo.net)  
블로그 [blog.naver.com/storyugyo](http://blog.naver.com/storyugyo)  
전자우편 [story@koreastudy.or.kr](mailto:story@koreastudy.or.kr)

**총괄/기획** 김민욱(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디자인** 김용원(디아이)

**제작** 김기해(단아코퍼레이션)